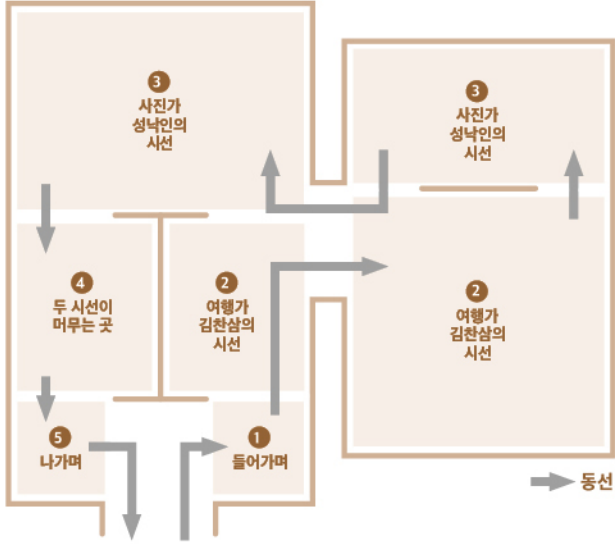


기획전시실

관람안내



① 들어가며

② 여행가 김찬삼의 시선

세계를 기록한 첫 한국인 여행가.
그의 눈에 비친 인천의 풍경

③ 사진가 성낙인의 시선

1960년 인천 거리,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낸 일상의 표정

④ 두 시선이 머무는 곳

⑤ 나가며

이*이 인천중문학회

2025년
짜장면박물관 특별기획전

두 개의 시선 하나의 거리

두 개의 시선 하나의 거리

2025년
짜장면박물관 특별기획전

2025 9. 26. _ 2026 5. 31.
짜장면박물관 1F 기획전시실



관람시간 | 9:00~18:00 (입장마감 17:30)

휴 관 일 | 매주 월요일, 1월 1일, 명절 당일
(단,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그 다음날 휴관)

관람료 | 성 인 1000원
청소년 700원
군 경 500원
어린이 무료

짜장면박물관
JJJANGMYEON MUSEUM

인천광역시 중구 차이나타운로 56-14
전시문의 ☎ 032-773-9812

짜장면박물관
JJJANGMYEON MUSEUM

이*이 인천중문학회

두 개의 시선, 하나의 거리

“

2025년 짜장면박물관 특별기획전 ‘두 개의 시선, 하나의 거리’는 1960년대 인천 청관 거리를 기록한 두 사진가, 세계 여행가 김찬삼과 사진가 성낙인의 작품을 통해 그 시절 거리의 풍경과 생활상을 조명합니다.

서로 다른 시선에 담긴 사진들은 청관 거리가 지닌 역사적 의미와 변화의 흔적을 드러내며 오늘날 도시와 과거를 이어 주는 매개가 됩니다.

이번 전시는 청관을 바라본 두 사람의 시선과, 두 시선이 교차하며 드러나는 1960년대 청관 거리의 다채로운 모습을 되새겨 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과거의 거리를 따라 걸으며 오늘의 도시와 마주하는 특별한 시간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가 김찬삼의 시선

한국 최초의 세계여행가
김찬삼 1920 - 2003

그는 평생 100여 개국을 여행하며 사진과 글로 세계를 기록했고, 그 기록은 시대를 넘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김찬삼은 단지 세계를 둘러본 사람이 아니라, 세계의 시선으로 우리가 사는 땅을 바라볼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천에서 머문 시간 동안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장소, 그리고 도시의 풍광을 탐색자이자 기록자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김찬삼의 사진은 한 시대의 시선을 담은 귀중한 기록입니다.



대불호텔 맞은편의 청관입구 거리

인천역 부근의 청관거리



청일조계지 경계 계단

공화춘

사진가 성낙인의 시선

사진가
성낙인 1927 - 2011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1회 졸업생으로, 이후 홍익대학교 대학원 시각디자인과에서 사진 전공 교수로 재직하며 사진 예술과 교육에 전념한 그는 일상의 풍경을 섬세한 시선으로 포착하는 사진가였습니다.

1960년 4월 17일.

당시 재직중이던 고등학교의 수학여행을 따라 인천을 방문하게 되면서 그는 인천 청관거리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날 그의 카메라는 당시 거리의 표정과 사람들의 삶을 차분히 담아냅니다.

정제되지 않은 순간 속에 녹아 있는 시대의 공기, 그가 남긴 인천의 풍경은 그 시절 분위기와 감정을 생생히 전해줍니다.

성낙인의 사진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도시와 사람을 바라보는 따뜻하고 담담한 시선을 보여줍니다.



인천역 앞에서 바라본 청관 전경

해안성당 부근의 청관거리